

검은 화면.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할머니(V.O) 엄마 말 들으라 그랬자?

1. 실외. 공원. 해질녘.

화면이 서서히 밝아지면... 해가 지고 있는 붉은 빛의 공원에 분한 눈빛으로 앞을 쳐다보고 있는 한 소녀 **오민서(15)**가 있다. 양 손으로 장우산을 칼처럼 잡고 있는 민서. 씩씩대면서 “아아아!” 소리치며 다시 앞쪽으로 달린다. 그러나 뒤로 팍 밀리는데 웬 막대기에 의해 밀리는 게 보인다.

할머니(V.O) 그냥 서면 디야. 두 발로 서 있는게 이기는겨.

민서는 긴 머리를 산발한 채 원망스럽게 앞을 본다. 눈물이 곧 쏟아질 것 같다.

민서 (외침) 뭐든!@#%\$%#\$%^@#%\$예요!!!

갑자기 공원 뒤 큰길에서 자동차가 뺑!!! 클락션을 울리며 지나가 민서의 말이 묻혀버린다. 외치고 있는 민서의 얼굴 클로즈업에서...
Cut to Black.

2. 실외. 공원. 아침

늦가을의 공원. 운동하는 노인. 장기두는 노인 등 노인이 많은 공원 풍경과 함께 남자 아이 목소리가 들린다.

민호(V.O) 1번!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무시한다.
 2번.... 어디 가자하면 안 따라간다. 3번...!

앓된 얼굴에 진한 화장을 한 민서가 **오민호(7, 남)**의 손을 잡고 공원 안을 걷고 있다.

민호 3번! (사이) 3번!

민호는 팔을 빙빙 휘두르며 탄짓을 하고 산만하게 행동한다. 벤치 앞에 도착하는 둘.

민서 3번. 그래도 데려가려 하면?
민호 아! 소리지른다!

민서 뭐라고?
민호 (두 손 입에 모으고) 도와주세요!

민서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민호는 자신의 책가방을 벤치에 내려놓고 놀이터로 뛰어간다.

민서 조심히 놀아!

민서의 무심한 시선이 건너편 벤치에 방석을 깔고 있는 류춘영 할머니(74, 여) 쪽으로 향한다. 덩성하게 잘린 흰머리에 후줄근한 개량한복의 할머니. 오래된 책과 꼬불꼬불한 지팡이를 탁 벤치 위에 놓고는 앉는데 민서와 시선이 마주친다. 히죽 웃는 할머니. 이리 오라는 듯 손을 까딱인다. 민서는 어색하게 얼른 시선을 거둔다.

3. 실내. 편의점. 오전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을 정리하고 있는 민서. 봉지에 담고 있다. 점장(30대, 남)은 음료를 꺼내 마신다. 점장의 눈치를 보는 민서.

점장 어휴... 방학이 얼마나 긴데!
민서 가을방학만 지나...
점장 아니야. 아닌거 같애. 우리 엄마 알면 클나. 편의점 유치원 만들일 있냐... 안 그래도 요즘 가게 일 안한다고 얼마나 잔소리를 해대는데..

공시령대는 점장에 입술을 깨무는 민서. 점장은 빙 돌아 카운터 쪽으로 간다. 카운터 안에 들어간 점장. 담배 진열장을 유심히 쳐다본다.

점장 민서야. 너 담배 피냐?
민서 (깜짝 놀라며) 네? (머뭇) 아니요?
점장 왜 숫자가 안 맞지... 엄마는 난줄 아는데 씨... 창성이 이자식인가..

민서, 아무렇지 않은 척 마지막 유통기한 김밥을 집어 넣는다.

점장 아오~ CCTV 돌려보기 완전 짜증나는데

봉지를 집어든 민서. 냉큼 문을 열고 나가며 창고로 들어가려는 점장에게 소리친다.

민서 점장님! 저 점심 휴식이요.

점장 야! 벌써 쉬어?!

4. 실외. 공원. 정오

한낮의 공원. 멀리 정자엔 함께 밥먹고 있는 노인들이 보인다. 민호는 삼각김밥을 먹는둥 마는둥 하다가 장난감을 들고 뛰어 놀기 시작한다.

민서 (봉지 들여다보며) 다 먹었어?

민호, 건너편 할머니에게 가서 뭐라고 소곤소곤 거리고 깔깔 웃는다.

민서 오민호! 일루 와!

민서가 민호를 부르고, 민호가 다시 붕붕 팔을 돌리며 뛰어온다.

민서 (걱정스레 다그치며)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말 걸지 말랬지.

민호 할무니 내 친구야~ 모르는 사람 아니야

민서, 할머니를 쳐다본다.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할머니.

민서 (봉지를 보며) 누나 가야돼. 오민호 조심히 놀아.

민서, 시선이 다시 할머니에게 향한다. 빵을 꺼내는 민서. 수상쩍은 표정이지만 할머니에게 다가간다.

민서 할머니 계속 여기 계세요?

할머니 (민서보며).....앞날을 알고싶어?

민서 (엥) 아니요~ 오후에도 여기 계시...

할머니 (자르며) 오천원이든 거저여~

민서, 머뭇하더니 민호를 한번 보고는 쓱- 빵을 내민다.

민서 제 동생 잘 좀 봐주세요.

할머니, 뻘뻘 쳐다보다가... 획! 지팡이 쥔 손으로 빠르게 빵을 낚아채 손에 탁 잡는다. 보름달 빵이다. “히힃!” 웃는 할머니.

민호(V.O) 보름달!!

5a. 실외. 집 앞 골목. 밤

어두운 하늘에 민호의 손가락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

민서 (보고는) 바보냐? 저게 무슨 보름달이야.

민호 저기 엄마 있어!

민서 엄마가 저깅음 어떡해!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

민호가 가리킨 건 전봇대 둥근 전등이었음이 보여진다.

민서(V.O) 오민호. 내일은 그냥 집에서 놀아.

민호, 고개를 저어 싫다는 표시를 하며 앞으로 뛰어가더니 뒤돌아 민서를 본다.

민호 그러면 누나도 나갔다 안 돌아와?

민호의 말에 민서의 눈빛이 변한다.

민서 야 누가 안 돌아와.. 갈 데도 없거든?

민호 따라 골목으로 들어간다.

5b. 실외. 집 앞 골목-문 앞. 밤

민서, 대문을 열려고 손을 뻗는데... 문이 끼익 열리며 웬 여자(40초반)가 나온다.
놀라는 민서와 민호. 여자도 남매를 쳐다보고... 여자의 손엔 더플백이 들려있다.

민서 (놀라서) 누구세요?

여자 너는 누구니?

민서 (가방을 보고) 우리 아빠꺼데..

여자 (어이없는 표정) 딸이 있었어?

민호 (당돌하게) 아들도 있어요!

여자, 민호를 본다. 민호는 민서 뒤로 숨는다. 여자는 어이없어하며 골목 밖으로 나간다. 민호는 쑥 문 안으로 들어가버린다. 들어간 민호를 확인하고 얼른 여자쪽으로

달려가 탁 붙잡는 민서.

민서 아빠랑 있죠. 왜 아빤 안 와요?

여자 ... 그걸 왜 나한테 묻니?

여자는 민서를 뿌리치고 다시 멀어진다. 민서, 멀어지는 여자를 본다.

민서 아빠 전화도 안 받는단 말이에요!!

민서가 여자를 향해 외친다. 멈춰서는 여자. 뒤를 돌아보며...

여자 목청 좋네. 잘 살겠네..

여자가 다시 멀어지고.. 민서, 허망하게 여자를 바라본다.

6. 실내. 편의점. 오후

매대 정리 중 멍때리는 민서. 카톡이 떠서 울린다.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 보는데..
<씨발. 야 담배. 안 오냐?> 민서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는다. 입술을 깨물다가 답장을 보낸다. <점장님이 눈치챈어.. 이제 안 될 것 같아> 고민하다 보내기를 눌러버린다.

7a. 실외. 공원. 저녁

공원 정자로 온 민서. 민호의 가방과 장난감만 있고 민호가 안 보인다.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패거리 1,2,3(17, 여2/남1)이 뒤에서 스윽 나타난다.

패거리1 야 담배~

패거리2 (다가가며) 씨발. 우리가 여까지 와야겠냐?

패거리2, 달라는 듯 손을 내미는데 민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패거리3은 친구와
전화를 하며 담배를 꺼내 피고 있다.

패거리1 없어? 와 애 봐라~

패거리2 언니들이 민증 만들어준게 그 몇 번으로 끝날 줄 알았니? 야 우리가
여기 돌렸다고 다 얘기해놨어~! 너 이럼 안돼!

그때 패거리3, 전화를 끊고 성큼성큼 다가와 민서 얼굴을 향해 연기를 내뿜는다.

패거리3 와.. 이걸 여자라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담배를 탁 버리며)
 이런건 화니형 전문인데.
 패거리1 아~ 화니오빠 보고싶다~
 패거리2 화니오빠 나왔어?
 패거리3 이제 나올 때 쯤 됐을텐데
 패거리2 야 담배. 너 이렇게 안 가져오면 화니오빠 직접와~ 니 월급 다
 가져간다?
 민호(V.O) 누나!

그때 민호의 소리가 들린다. “뭐야?” “귀엽게 생겼네~” 하고 패거리1,2가 주고받자
 민호는 다가오려다가 이상한 분위기에 멈칫한다.

패거리3 (웃으며) 어이구~ 이리와! (민서에게) 애도 데리고 다녀?

패거리3, 민호에게 다가가고. 패거리1이 민서를 짹 잡는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민호가 얼른 도망간다. 패거리3이 쫓아가며 붙잡는다. 민서가 따라가려 하지만
 패거리2와 1에 붙잡혀 있다. 민호는 결국 패거리3에게 잡힌다.

민호 시러 저리가!!!!

민서와 나머지들이 다가오는데.. 패거리3이 민호를 번쩍 들어올린다. 발버둥치는
 민호, 갑자기 외친다.

민호 도와주세요!!!! 할머니 도와주세요!!!

민호가 외치자 하늘을 보고 있던 할머니가 이들을 쳐다본다. 패거리3이 할머니를
 힐끗 본다. 할머니, 지팡이를 잡으며 벤치에서 일어나면서... 쿵! 하고 바닥에
 내리찍는데 갑자기 낙엽이 휘잉 날린다..

할머니 내 새끼 건들지마!!!

민서와 패거리 모두 할머니를 보는데.. 그때 멀리서부터 뽕짝 소리가 들려온다. 전동
 휠체어를 탄 노인이 라디오를 휠체어에 꽂고 위잉- 지나던 것. 할머니, 음악에 맞춰
 쿵짝쿵짝 춤 스텝을 밟는다. (*대찬인생 느낌의 노래)

패거리3이 비웃으면서 뒤돌아 민호 팔을 붙잡고 따라 춤추는 척 하고 나머지

패거리들이 비웃는다. 그런데 춤추던 할머니, 눈 깜짝할 새에 패거리3에게 다가와 지팡이를 멋지게 휘두르며 "아이고!" 하더니 탁탁! 패거리3의 손을 친다. "아!!" 하고 패거리3이 민호를 놓는다.

할머니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은 혼 나야지!

어이없는 패거리3. 할머니를 공격하는데.. 할머니가 지팡이로 패거리3을 혼내듯이 탁탁 치더니 넘어뜨린다. 뒤쪽에 있던 패거리1,2가 다가와 할머니를 공격하는데 할머니, 순식간에 지팡이로 이들을 혼내준다. "아이고! 아이고!" 공격하며 모두 쓰러뜨리는 할머니 ("아이고"는 코믹하지만 액션은 진지하고 멋지다).

민서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보고 있다. 할머니는 다시 태연하게 벤치로 가더니 돗자리를 맡아 등에 메고 민서를 쳐다본다. 무언가 말할 것이 있는 듯 입을 썰룩이는 할머니. 민서가 긴장하는데...

할머니 보름달?

민서는 엉? 하는 표정이 된다. 할머니도 고개를 가우뚱 한다. 획 뒤돌아 걸어가는 할머니. 멀어지는 할머니를 보는 민서. 쫓아간다.

8a. 실내. 콜라텍 입구. 저녁

할머니가 계단을 내려간다. 민서도 민호를 데리고 따라 내려간다.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간다. "조심하세요"라고 큼직하게 써진 문. 민서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할아버지들이 바둑을 두고 있다. 지나서 더 안으로 들어가자 뽕짝 음악 소리와 함께 복도가 나온다. 콜라텍 입구다. 한 **할아버지(60중반)**가 "누님 왔어?" 하고 말하지만 무시당하고 할머니가 쭉 안으로 들어간다. 민서를 보는 할아버지. 민서는 멀어져가는 할머니를 부른다.

민서 할머니!!

민서의 외침에 할머니가 획 고개를 돌려본다.

할아버지 (할머니 쳐다보며) 엉~ 가족이 있었..

할머니 (뻘뻘 보다가)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획 들어가버린다. 당황하는 민서.

할아버지 쫄쫄..... (남매를 보더니) 들가봐~

민서는 얼른 민호를 데리고 들어간다.

8b. 실내. 콜라텍-홀. 저녁.

안으로 들어온 민서와 민호. 눈이 휘둥그레진다. 파장 분위기지만 마지막까지 춤추는 할머니 할아버지 몇 쌍이 남아있다. 할머니가 사라져 두리번거리는 민서. 그때 할머니가 짐을 놓고는 나와 기름걸레를 집어 구석부터 걸레질을 시작한다. 얼른 뒤로 가서 걸레를 하나 더 잡아 가져오는 민서.

민서 도와드릴게요!

민서, 기름걸레질을 열심히 하면서 할머니 눈치를 본다.

민서 아까 지팡이로 뭐 하신거예요?

할머니는 열심히 걸레질만 한다. 그때, 탁- 콜라텍 조명과 노래가 꺼져버렸다가 형광등 불이 켜진다.

민서 지팡이요 지팡이!

할머니 (갑자기) 수업은 이따 시작해요~

할아버지(V.O) 지팡이 무슨?

할아버지가 문 뒤로 마지막 퇴장하는 노인커플을 등진 채 이들 쪽으로 걸어온다.

할아버지 누님이 지팡이 도사야~ 기가막히게 휘둘러. 사람들 혼내키고.

여기서 수업도 하고 그랬었는데~

민서 (얼른) 수업 배울 수 있어요?

할아버지 치매 노인한테 뭘 배워~ 제정신도 아닌데..

민서 (놀라며) 아까는 완전 괜찮았는데... (보며) 청소도 하시잖아요.

할아버지 그것은 몸이 하는 것이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다가간다. 의아한 민서. 할아버지는 갑자기 잡고 있던 걸레 자루를 할머니 쪽으로 놓친다. 그러자 걸레질 하던 할머니가 자신을 향해 넘어지고 있는 걸레 자루를 돌아보지도 않고 발로 탁 친다. 다시 할아버지 손에 들어오는 걸레

막대.

할아버지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것이라고.
 본능적 기억만 남는겨...

민서, 놀라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다가온다. 무언가 기억난듯한 느낌.

할머니 (민서 향해 손을 내밀며) 보름달 줘어~

김새는 민서, 할아버지는 킬킬대면서 벽쪽으로 간다.

할아버지 누님이 보름달을 좋아해~

스위치를 켜면, 천장에 동그랗고 커다란 조명이 돌기 시작한다. 반짝거리는 둥근 조명. 민호가 신이 나 빛을 따라 뛰어다니다가 할머니 손을 잡고 막 춤을 춘다. 민호 손을 잡은 채 헤헤 웃으며 조명을 쳐다보는 할머니.

9. 실내. 편의점. 오후

판매용 장우산을 휘둘러보고 있는 민서. 딸랑 문이 열리자 얼른 우산을 내린다.

민서 어서오세요.....!

후드를 입은 남자, **화니(19. 남)**가 들어온다. 화니는 민서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매장 안쪽으로 천천히 들어가는데 왜인지 민서는 긴장한다. 화니, 유유자작 매대 사이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툭툭 건드리다가 소세지를 하나 집어 들고 카운터로 가 탁 내려놓는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좌르륵 카운터에 쏜다. 조그만 나이프 하나가 같이 카운터에 떨어진단다. 민서, 바코드를 찍어 계산하고는 동전을 세기 시작한다. 화니, 소세지를 뜯는다.

화니 (한입 먹으며) 할머니는 누구야?
 어제 애들을 봤는데... 자꾸 할머니 얘기를 하더라고..맞아?

화니. 씨익 웃다가 카운터 뒤의 담배 매대로 시선이 향한다.

화니 레드

민서가 말보로 레드를 꺼내 카운터에 내려놓는다. 만족스러운듯한 화니의 눈빛.

화니 착하네. 계속 착해야지.

그런데 화니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쑥 내밀어 민서와 가까워진다. 움찔하는 민서.

화니 민증값은 언제 낼거야~

화니, 카운터의 탁상달력을 들더니 30일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준다.

화니 30일이다.

딸랑- 마침 손님 하나가 들어온다. 화니, 방향을 돌려 나가려다가 멈칫하더니..

화니 놀이터에 애도 하나 있다던데..

민서의 표정이 갑자기 굳는다. 화니, 뚫어져라 민서를 보다가 씨익 웃으며..

화니 귀엽대~ 인사나 해야겠다

화니가 나가고, 민서는 이제 막 들어온 손님을 쳐다본다. 따라나가려는 다급한 시선.

10. 실외. 공원. 오후

민호가 있던 정자로 뛰어오는 민서. 민호가 자리에 없다. 당황스런 표정.

민서 민호야!! 오민호!!

그때 미끄럼틀에서 쑥 나오는 민호. 화니가 먹던 소세지를 먹고 있다.

민호 누나?

민서의 굳었던 표정이 풀어진다. 탁탁 민호에게 가는 민서. 입에 물린 소세지를 잡아 던져버린다.

민서 누가 준 거 함부로 먹지 말랬지!!!

민호, 으앙- 하고 울기 시작하는데 민서는 민호를 달래주지 않는다. 그냥 서서 민호를 보고 있더니... 같이 울기 시작하는 민서. 누나가 울자 민호는 더 크게 운다.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는 남매.

11. 실외. 공원. 해질녘.

민호가 가방을 챙기고 있다. 옆에 앉아있는 민서는 할머니 쪽으로 자꾸 시선이 간다. 할머니는 방석에 책을 싸 접더니 걸어간다. 민서는 할머니를 자꾸 쳐다보다가 민호에게 “있어봐!” 하면서 할머니를 따라 간다.

민서, 할머니의 어깨를 잡으려 하는데 할머니는 뒤도 보지 않지만 획 피한다.

민서 다 기억하잖아요! 좀 가르쳐주세요

할머니, 스윽 뒤돌아보고는 다시 걸어간다. 민서, 한손에 잡았던 장우산을 다시 쥐더니 갑자기 할머니에게 덤비듯 달려든다. 할머니, 획획 피하더니 지팡이로 민서를 툭 때린다. 민서는 몇 번 더 할머니를 공격하지만 맞기만 한다. 첫 오프닝 씬이 반복된다.

할머니(V.O) (앞보고 걸으며) 엄마 말 들으라 그랬자?

분한 눈빛으로 앞을 쳐다보고 있는 민서. 양 손으로 장우산을 칼처럼 잡는다. 씩씩대면서 “아아아!” 소리치며 다시 앞쪽으로 달린다. 그러나 지팡이에 의해 뒤로 또 팍 밀린다. 꿈지만 보이던 지팡이에서 카메라가 이동하면 할머니 얼굴이 드러난다.

할머니 그냥 서면 디야. 두 발로 서 있는게 이기는겨.

민서는 긴 머리를 산발한 채 원망스럽게 앞을 본다. 눈물이 곧 쏟아질 것 같다.

민서 (외침) 뭐든!@#%\$%#\$%^@#%\$예요!!! (해야 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공원 뒤 큰길에서 자동차가 빵!!! 클락션을 울리며 지나가 민서의 말이 문혀버린다.

민서 뭐든 다 할거예요! (다짐) 민호 세상은 지켜줄거야..!

잠시 정적... 할머니, 민서에게 손을 내민다.

민서가 손을 뻗자 할머니가 손을 꼭 잡아준다. 그런데...

할머니 (땡깡) 쥐~~~ 보름달.

다시 치매 할머니의 모습이다. 허탈한 표정의 민서. 답답함에 “씨... 정신좀 차려보라고요 할머니!!”하며 할머니를 향하는데 할머니가 민서의 팔을 획획 꺾어 탁 튕겨내더니 말한다.

할머니 이르키 방어를 혀~~~

놀라는 민서의 표정. 마주치는 둘의 시선. 가르침이 시작됐다. 민서, 일어나면서..

12. 실내/외. 혼련 몽타주. 낮/밤

12a. 실내. 콜라텍. 밤.

일어나는 민서로 연결/ 할머니와 연습중이다/ 할아버지의 손이 CD를 넣는 버튼을 누른다/ 뽕짝 음악과 함께 연습 몽타주가 시작된다/할머니, 춤 스텝을 밟는 듯 하더니 공격을 한다. 민서가 따라해본다. 민호도 뒤에서 춤을 추며 논다.

12b. 실외. 공원1. 낮.

할머니는 앉아있고 민서 혼자 연습한다. 민호는 뒤쪽에서 동작을 따라하며 논다.

12c. 실내. 편의점1. 낮.

장우산으로 혼자 연습하는 민서.

13. 실내. 콜라텍. 밤

할머니,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민서를 공격중이다. 민서는 장우산으로 몇 번 지팡이를 막지만 “아야! 아야! 잠깐! 할머니!” 하면서 계속 맞는다. 눈을 뜨지를 못 한다.

할머니 피하지 말고 두 눈을 똑바로 떠~~

민서 못 뜨겠다고요!

할머니 (호통) 눈을 감고 어뜨케 공격을 한다? 거 아녀?

민서가 곧장 이어받으며 고함을 친다.

민서 (분함, 짜증) 무섭단말이에요. 할머니도 자꾸 아이고 소리 내잖아요.
나도 눈이 그냥 감기는걸 어떡해요!

할머니, 멍하니 민서를 쳐다본다.

할머니 그거 아ంది~~

민서 ...?

할머니 아 미국말인디... 내가 간다. (발 내딛으며) 아이 고.

민서, 내딛은 할머니 발을 쳐다보며 잠깐의 정적. 할머니가 “아이고.. 허리야~” 진짜
신음소리를 내며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굽히더니 “아고...밥줘어~” 하며 소파로
가버린다. 허탈한 표정이 되는 민서.

14. 실내/외. 훈련 몽타주. 낮/밤

14a. 실외. 공원. 낮

민서 훈련 몽타주

14b. 실내. 편의점. 낮

민서 훈련 몽타주

14c. 실내. 콜라텍. 밤.

민서 훈련 몽타주

할아버지, “애~쓴다!” 하면서 지나간다.

나중에 화니와 싸울 때 사용할 기술(지팡이 끌랑지로 보름달 빵 뺏는 기술)을 배운다.

***레퍼런스: 빌리엘리엇 연습과정-장소는 바뀌지만 하나의 동작이 연결됨)

15. 실내. 콜라텍. 밤

민서가 홀 바닥에 털썩 드러눕는다. 땀에 흠뻑 젖은 모습. 할머니도 “아이고”하며
주저앉는다. 할아버지가 물을 가져와 건넨다.

할아버지 누님 괜찮어?

할머니 (할아버지 뻘히 쳐다보다가 해맑게)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희한해.. 연습 때는 말짱한거 같은데.. (민서를 향해) 내일이라고?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일어나 연습 자세를 취한다.

할아버지 개들은 왜 그런대...? (사이) 원래 어릴 때가 쥔 힘들어~

할아버지, 스윙 보자기를 내민다. 의아한 얼굴로 보자기를 받는 민서. 풀어보니 개량한복이 들어있다.

할아버지 누님이 자기 손주 오면 주라고 말긴건데..

민서 (놀라며) 할머니 가족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찌찌... 있는건지 없는건지... 저 어디야 그 미국 갔다는데..
치매 걸려서 연락도 안돼... 누님은 이렇게 자식들 온다고
맨날 나가잖아 공원에. 마중한다고.

민서 (한복을 펼쳐본다)....

할아버지 니가 손녀해~ 누님 제자니까.

민서, 할머니를 바라본다. 할머니는 다가온 민호와 장난을 치고 있다.

16. 실내. 편의점. 저녁

딸랑 문소리. 민서, 카운터에서 초조한 얼굴로 서 있는데 점장이 다가온다.

점장 어으 오늘 늦었다. 얼른 퇴근해~!

(Cut to)

카운터 문을 열고 나온다.

(Cut to--16a. 사무실)

사무실 의자에 걸린 한복을 집어든다.

민서가 사무실에서 나온다. 점장은 민서를 본다. 한복으로 갈아입은 민서.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심지어 처음보는 쌍얼이다.

점장 앵~ 어디 가?

민서 네

점장 어디?

민서 (돌아보며)..... 저 이거 잘 어울려요? (or 아이 고!)

점장, 의아한 표정이 되면 민서는 씨익 웃고 다시 획 돌아 문 쪽에 있던 우산꽃이의 장우산을 하나 탁 잡고 문을 열고 나간다.

점장(V.O) 야! 돈내고 가!

17. 실외. 공원. 저녁

탁탁 민서의 운동화 신은 두 발이 땅에 선다. 민서 정면에 거리를 두고 패거리 셋과 조금 뒤쪽에 화니가 서 있다. 패거리는 “푸흠. 옷 장만했니?” 하고 비웃는다.

패거리3 우리 담배.. 월급 받았..
민서 (떨리는 목소리) 담배라고 부르지마..

민서, 우산을 바닥에 탕! 내리 꽂는다. 바람이 약하게 휘잉 불며 낙엽이 휘날린다. 심호흡을 하더니 춤 스텝을 밟기 시작한다. 민서의 스텝에 패거리들은 어이가 없다.

민서 덤벼!!

민서가 외치고, 패거리 1,2가 “덤비긴 뭘 덤벼” 하고 욕하면서 달려온다. 패거리2가 머리채를 잡으려는데 민서가 우산으로 탁탁 치면서 패거리 1을 때려눕힌다. “이거뭐야?” 하고 우산을 잡던 패거리2도 때려 눕혀진다.

민서, 다시 자세를 잡고.. 패거리3이 빠르게 달려든다. 큰 키와 덩치에 압도되는 민서. 패거리3이 여러번 민서를 때리기 위해 공격하지만 민서는 요리조리 피하더니 타이밍을 봐 패거리3도 쓰러뜨린다. 숨을 몰아쉬며 화니를 쳐다보는 민서.

화니는 흥미롭게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민서 앞으로 걸어오며 주머니에서 캠핑용 칼을 꺼낸다.

화니 야... 너 재밌다?

화니,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다. 민서가 방어하지만 어설프다. 칼이 우산을 찢기 시작한다. 민서, 뒤로 밀린다. 긴장한 표정. 힘껏 막아보는데 민서는 화니이 발에 차이고 우산이 펼쳐지며 날아간다. 너덜너덜 찢어진 우산. 잔뜩 겁먹는 민서. 눈을 꼭 감는다.

화니 겁도 없이... 뭘 베풀이야?

그때, 탁! 화니의 머리를 치는 지팡이. 화니가 어이없어하며 쳐다보면 할머니가 다가온다. 화니, 기분나빠 할머니에게 팔을 휘두르려는데 할머니, 빠르게 한방 지팡이로 화니를 가격하자 화니가 뺨 뒤로 날아간다. 민서를 보는 할머니.

할머니 딸. 왜 여기 이려고 있어?

넘어져있는 민서의 놀란 표정.

할머니 엄마가 말했잖?

할머니, 지팡이를 손에서 놓는다. 민서앞으로 기우는 지팡이. 민서가 탁 지팡이를 잡는다.

할머니 기합 넣으라고. 아이 고!

화니, 할머니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 민서 시점에서 보인다. 탁! 민서는 한 발을 내딛으며 튀어나가 화니를 찌른다. 뒤로 밀리는 화니. 할머니는 헤- 웃는다.

민서와 화니의 마지막 싸움. 민서는 이제 지팡이로 화니를 연타로 때린다. 도중 민서는 낚아채기 기술을 이용해 화니의 칼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민서는 연습한것들을 이용한다. 민서, 지팡이를 휘두른후 마지막 결정타 찌르기 공격을 하고 화니가 쓰러진다. 지팡이 끝을 바닥에 쿵! 하고 짚어 내리는 민서. 쓰러진 화니(카메라)를 보며...

민서 서 있는 사람이 이긴거랬어! 우리 할머니가...!

18. 실외. 공원. 오전

오전의 공원 풍경. 노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한쪽 구석에서 “하나! 둘!” 하는 구호 소리가 들린다. 보면 노인들 대여섯이 줄을 맞춰 서 있고, 그 앞에 민서가 구호를 붙이고 있다. 할머니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민서. 지팡이로 동작을 보여주다가 멈칫하며..

민서 음... 이거 다음에는요... (뒤를 보며) 할머니!

민서의 시선을 따라가보면 뒤쪽 정자에 할머니와 민호가 앉아 있다. 할머니, 민서의

외침에 민서를 쳐다보는데...

할머니 (뻘히 보다가 헤 웃으며) 안녕하세요~

민서, 허탈하게 웃으며 “아이 할머니!” 하면서 할머니쪽으로 간다. 할머니 손을 잡고 앞으로 나오는 민서. 민호. 할머니 각각의 얼굴들에서 freeze frame 되면서...

-The End